성경이 말하는 신격
The Biblical Godhead

1. 성경상의 표준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삼위일체설의 신격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신격의 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었는지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어떤 여유와 자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가 말하는 것은, 명백하게 일로힘 (하나님)의 개념이 **공동으로 동등하고, 영원히 공존하는** 세 분들이 구성되어 분리된 지적인 분들로써 조화를 이루어 활동한다는 사상이, 성경말씀으로 볼 때 이상한 것이다. 사실, 일로힘 하나님의 단어가 (문법상)으로 복수형이지만, 반드시 세 분들을 표시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세기 **1:26**절에서 복수 대명사들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입증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한 분 보다 더 많다"고 해서 "세 분"과 똑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격을 갖추신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존재하신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 안내서가 모든 교리들을 해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삼위일체설-반대자들이 오직 필요한 것은, 윗 문단에서 설명한 삼위일체 이론의 체계를 성경에서 증거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야 한다. 유능하지 못한 삼위일체설 전문가들이 삼위일체설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논쟁하기를 "삼위일체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라." 고 한다. 이것을 증명 하려면 입장을 바꾸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삼위일체설-반대자들의 믿음을) 거절하는 개념이 결코 없었으면, 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상당수에 성명서를 만들어서 "삼위일체가 없다." 고 진술하였는가?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이것에 대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부담을 가진 자가, 영적인 조상이 남긴 발자취를 잃으면, 흔히 불합리한 논쟁들과 함께 신빙성을 잃게 될 것이다.

삼위일체설-반대자들이 성경에서 신격의 견해를 증명한 결과가 두 가지 방침들로 이어진다; 첫째, 신성의 표준 안에서 세 분이 공동으로 동등하고 영원히 공존하는 인격들로 성경이 지지하여 보여준 증거가 없다. 두번째, 성경 구절들이 제공하는 거룩한 영감의 빛 안에서 삼위일체의 표준을 만들어 진술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 앞서 말한 것에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개념을 규탄하는 문장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에서 제공한 요지는, 신격의 견해가 삼위일체설-반대론이며, 이것이 성경말씀으로부터 끌어낸 합리적이고 견고한 교리이다.

첫번째 논쟁에 요지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성령"과 "영"을 많이 언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은, 성경에서 누구든지 성령을 한 분의 인격으로 대우한 어떤 기록도 없다; 물론 독자적인 신성의 인격에 대한 언급도 없다. 우리가 찾아낸 것이 다음과 같다:

a. 성령에게 기도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성령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다. (시편 **51:11)**

b. 인간들과 성령 사이에 대화가 없다.

c. 성령과 다른 신격의 멤버들 사이에 대화가 없다.

d.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관련된 성령을 하나님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 [창세기 **1:2],**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9])**

e. 성령은 이름이 없다 -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 독특한 이름들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잠언 **30:4)** - 성경에서 이름을 성품과 개성으로 상징한 것을 기억하라 (창세기 **32:28,** 마태복음 **1:21)**

f. 성령을 인격화한 언급들이 없다. 많은 경우에,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을 상징으로 보았고, 계시 또는 "사람들"과 같이 육체를 가진 모습을 보았다, (출애굽기 **15:3,** 디모데전서 **2:5)** 그러나 성령을 결코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그것이 불꽃이었고, (사도행전 **2:3)** 비들기였으며, (마태복음 **3:16)** 비 (이사야 **44:3)** 등등으로 표현되었다.

g. 성경에서 성령을 설명할 때 인격적인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항상 성적 구별이 없다. 히브리 언어로 성령이 **(ruach)**이며 여성형이고, 기초적인 표현 형식 안에서, 남성적인 인격을 표시하기 위하여 규정된 남성 명사를 **(**복수형의 남성적인 일로힘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스 언어로, **ekeinos** 단어가 보편적으로 그/그녀/그것을 표시하는 경우에 **autos** 대명사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ekeinos**가 나타난 것은 어떤 개인들에 평판을 떨어뜨리는 센스로 오직 따돌림 받는 사람이나 반감을 가진 인물들에게 사용되었다.*****

*****주목**:** 어떤 자들이 이 세 가지 요점들이,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단언하고 두 번째 증거의 요지로 취급한다.

성경에서 항상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들과 성령의 본질을 뚜렷하게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아버지께서 사람이신 그 분의 아들을 통하여 그 분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 지금,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이 아들 안에서 구체화 하고 인격화 한 성령을 통하여 성취한 것이다. 성경 구절에서 아들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 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요한복음 **14:16)** 아무튼, 우리가 발견한 것은, 메시야께서 위로자를 증명하셨을 때, 사용하신 단어 "다른"이 **[alla]** 정연하게, 그 분의 특유한 임재를 말씀하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서기관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옳소이다. 선생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한 **(alla)** 분이시오, 그 분 외에 다른 이는 없나이다." **(**마가복음 **12:32)** 또 다시, "한 **(alla)** 시간쯤 지난 후 다른 사람이 장담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임이라.' 고 하니라." **(**누가복음 **22:59)**

이 두 경우와 역시 다른 경우에도, "다른"의 단어가, 다른 자로부터 분리된 한 분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 한 분을 다른 **(**즉 위로자**)**와 함께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다. 마가복음 **12**장에서 그리스도와 서기관의 언급에 의하면, 그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하였다. 베드로가 선생님께서 재판당하시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한 시간"이 지난 후, 첫 번째 시간처럼 "다른" 시간이 된 것이다. 이 "다른"의 술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그 분 자신이 위로자임을 시인하였을 때, 한층 더 확실하게 한 것이다.

그 분이 "다른" 위로자를 보내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로 **(**위안없이**:** 킹제임스 성경**)** 남겨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18)** 사도가 그의 편지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1)** 이 "변호인"을 **(**그리스어**: parakletos)** 요한복음 **14**장에 "위로자"와 **(parakletos)**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 '영'이 그리스도의 본질과 생명임을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였고, 또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주께로 **[**그리스도 **- 14**절을 보시오**]**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16,17)**

아버지로부터 나온 영의 실체가, **(**요한복음 **15:26)**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본질이다. 그들의 '영'이 실제로 번민한 것과 **(**다니엘 **2:3)** 또 크게 기뻤하였던 **(**누가복음 **1:47)** 것을 성경 저자들이 완전한 방식으로 정렬하여 진술하였다. 이것이 단순히 의미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이러한 상태들을 경험한 것이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요점이 됨은, 성령을 설명한 동시에 "진리의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면," **(**요한복음 **15:26)** 이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진행중임을 나타내었고, 아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요한복음 **16:28)** 이는 지나간 것을 암시하고, 나온 행위가 끝마쳐진 것이므로, 그 분의 임재하심과 능력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지상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신성의 표준을 상징한다 **(**고린도전서 **11:3)** 자녀들이 제 때에 부모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온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부모들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언어들과, 권위들, 능력들, 그리고 지혜가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윗 문단에서 두 번째 논쟁의 요지를 확대하여 보여주는 것은, 세 번째 공동으로 동등하고, 영원히 공존하는 인격이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 구절들이 그 개념을 반박한다. 고린도후서 **3:17**절에서 영과 그리스도가 동일함을 강하게 증명하였다, 이는 영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동등하므로, **(**똑같은 권능을 가진 다른 존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동등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 영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분의 본질의 모습인 그 영이 그 분과 함께 영원한 것이다, 그것이 마치 그 분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인격처럼 그것 자체가 실지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오래도록 **(**만일 가정적으로 무한한 때를 실제로 적용시키면**)** 존재하는 것이다.

동등과/공동으로 동등한 것과 영원함과/공동으로 영원한 것의 술어들 사이에 다른 점에 대하여, 어떤 의도로 사소한 것을 꼬치꼬치 따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과 두 분의 임재하심과 존재하심으로부터 영을 분리시키기로 체결한 종교적인 결론 때문이다. 이 부분 끝에서 이것에 대하여 토론할 것이다. 우선은,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더욱 깊은 문장을 보기로 한다. 성경에서 영감의 말씀 자체가 말하는 것을 시인할 때, 이론의 체계를 만들어 정당화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첫째, 바로 윗 문단 리스트에서 준비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응답한다. 영이 때때로 표면상으로 나타나서, 인간들과 신격의 다른 구성 요소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영이 "말할 때" 언제나 똑같이, 중개인을 통하여 실행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나 천사가 **(**예를 들어서, 그 분의 임재하심 안에서 그 분의 목적들과 성품과 견해들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활동하며 수행하고 또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마땅히) 영의 덕분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3:24**절과 사도행전 **11:12**절에서, 엄밀히, 영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심적인 대화를 통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다. 이는 거룩한 능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양심이 동등함을 이 성경 구절들에서 나타내었다.

한 성경절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속 받은 자들이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 준다," (로마서 **2:15**)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로마서 **8:16**) 바울이 두 구절을 결부시킨 문장들에서 다양하게 기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증거함이라. (로마서 **9:1**)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설명한 기록들에서 그 이상의 차이점을 읽을 수 있다; 아버지와/아들이 공공연히 말씀하실 때, 항상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수행하였으므로, 인간 (또는 인간과 똑같은) 근원에 센스들 안에서, 듣고 보는 것으로 간파하였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4:17**, 고린도전서 **15:7**, 사도행전 **9:4**, 요한복음 **12:29**)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임재는 상징이고 (예를 들면, 불꽃 또는 비들기) 눈에 안 보인다: "사람의 심중"에서 일하는 신격의 봉사는 (에베소서 **3:16**) 오직 다른 자들에 의하여 듣거나 본 후에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러한 실례를 포함한다. "그들이 [제자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3:2**) 다른 구절을 읽으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 고 하시니라." (계시록 **14:13**) 세번째 구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계시록 **22:17**)

윗 문단에 세 성경절들이, 마치 성령 스스로 출현하여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항상 회중에서든지 또는 중개인들이 참석한 곳에서 일어났다; 세번째 성경절의 경우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구속받은 성도들 (계시록 **14:3**) 또는 교회 전체가 된다. 영 자체가 결코 하늘로부터 나타나 보이거나 말하지 않았고, 또 그것 차제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들과 함께 직접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명시하지 않았다. 참으로 성경 자체가 성령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분명하게 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카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계명들을 어기어 번영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니" (역대기하 **24:20**)

이것을 정연하게 말하면, 준비된 중개인 제사장 스카랴에게 영이 임하였다. 다른 선지자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에스겔과 **(11:5)** 다윗에게 (마태복음 **22:43**) 똑같은 원칙이 드러났다. 우리가 성경 마지막 장을 읽으면, 전능하신 분께서 백성들과 대화하시는 방식이, 여전히 변함없이, 그 분의 영이 매개체가 되어 인간 대변자에게 통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4, 11, 17, 29; 3:6, 13, 22**)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대화하는 사람이 계시자 요한이다.

모든 다른 성경절들에서도 성령에 대하여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설명하였다. 신격이 원하시는 대로, (사도행전 **2:18**)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된 분들로 존재하시는 센스 안에서 개성이 없는 성령을 보내신 것이 틀림없는 것은, (갈라디아서 **4:6**) 성령을 받은 것, (시편 **51:11**) 성령을 부어주신 것 ((이사 **32:15**) 등등. 이다. 이것은 항상 그것 자체의 의지력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만일 성령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보내신 거룩한 분들의 매개물들을 통하여 변함없이 활동하는 것으로부터, 분리된 지성인들처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인격이 없는 성령 대명사를 **ekeinos** 압도적으로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었다. 요한복음 **14:16,17**절에서 오직 한번 인격을 갖춘 남성 대명사로 **autos** 성령을 설명하여, 하여간 (외관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 **18**절에서 성령의 상태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결합된 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 문장 전체를 읽으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 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 후면 세상이 더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요한복음 **14:16-19**)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먼저 "그"가 문법상으로 관련시켜서 작성한 동사의 일부분이고, 사람이나 성별로부터 분리한 단어로 나타낸 것이 아니다. 다른 그는 (그리스어로 **autos**) 성령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언급한 것이다; 오직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을 읽어야 어울린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 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미래 시제)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누구?)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만일 이 문장의 주제가 여전히 영이라면, 그들 안에서 이미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영을 보내시라고 요청한 것이 무의미한 것이 된다.

메시야께서 그 분의 제자들이 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 이유는 그들이 이미 아버지를 알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었지, 그들이 이미 영을 알고 소유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으므로; 그 분께서 완전히 불필요한 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만든다. 우리가 그것을, 인격을 갖춘 유일하신 아버지를 언급한 대명사로 **autos** 이해하면, 메시야께서 관련지어 말씀하신 두 문장이 문법적인 센스가 있고, 다른 문장과 일치하게 된다.

그 문장을 이런 식으로 읽는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 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아버지] 보지도 못하며 또한 그를 [아버지를 (영문)]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버지] 아나니 이는 그가 [아버지] 너희와 함께 [이미!]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 후면 세상이 더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요한복음 **14:16-19)**

지금 이것이 이치에 맞는다; 세상이 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미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친밀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영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인용문을 결부시켜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시한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요한복음 **14:23)**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성경에 (문법의) 복합된 문장들 안에서 문법적으로 해설하는 대명사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가 크게 필요하다.

삼위일체설 신봉자들과 삼위일체설-반대자들 사이에 독특하게 다른 문제점이 있다; 삼위일체설 신봉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분리된 인격들로써 서로 연합하여 활동하고 믿는 자들 안에서 거하신다고 믿는다. 삼위일체설-받대자들이 취한 견해는 (성경 구절들이 지지하여 지시한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거룩한 영감을 통하여 믿는 자들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분리된 영이 세번째 신격이며 거주하는 인격자라고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성경 구절들에서 때때로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언급하였고, 때때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설-반대자들은 이것이 동격과 마찬가지므로, 신격의 구성 요소들의 "명부"를 확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경 천체에 걸쳐서 신격이 일치하게 병행함을 간파하였다.

어떤 삼위일체설 신봉자들은 사도 요한의 문장에서 정확하게 "기재된 명부"의 증거를 찾았다고 믿는다. 그들이 읽기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요한일서 **5:7** - 킹 제임스 성경) 이 구절이, 표면상으로 삼위일체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것처럼 생각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문장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그 주제의 명부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신격의 구성 요소들의 명부인가?" 아니면 그저 증인들의 명부가 인격들일 수도 있고 인격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가? 영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명부에 올려져 나타났다는 간단한 이유로, 영이 인격이라고 결말짓고, 바로 다음 구절을 읽으면, 불합리한 논쟁이 될 것이다: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8절)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 만일 우리가 그 영이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은 인격이라고 결말짓기를 원한다면, (본문에서 어떤 구절도 혼란시키지 않는 것을 기억하면서) 물과 피도 역시 인격들이라는 뜻인가? 영이 계속 그 분들과 함께 명부에 기입되었다.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는 이 어법에 의하면, 영과 땅에 있는 다른 두 증거하는 것들 사이가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는 단어가 그리스어 (원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두 구절들에 있는 그 동사가 정확히 똑같다. 아버지와 말씀과 영이 "하나"이고 그들 모두가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들이다. 영과 물과 피가 "하나"이고 그들 모두가 땅에서 증거하는 것들이다.

신격의 이론의 체계가 실제로 여기에서 드러났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6)**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들을 보내셨다. 역시 이 원칙을 개심한 침례 자들인 우리에게도 말한 문장으로 적용시키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마태복음 **28:19)** 그 단어 "이름"이, 단지 인격을 갖춘 이름이 아니고 원인과 목적을 뜻하는 것이다; 그 단어 '이름'을 사용한 의도가, 셋 모두가 인격을 갖춘 '이름들'을 소유하였다고 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의 "이름들" 보다도 오히려 단수 형식에 "이름"이 실제로 사용되었다.

***** 위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실, 영에게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 (잠언 **30:4)**

***** 사실상, 기록된 모든 경우에, 사도들이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이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38, 8:16, 19:5, 10:48,** 로마서 **6:3)**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 지시에 불손종하지 않았다.

바울이 다른 성경구절에서 신격의 참된 성품을 인간들의 결혼을 말할 때 드러내었다. 그가 기록하기를,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1:3)** 또 다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23,32)** 바울이 영적인 전문어들을 사용하여 세 종류의 비슷한 상태를 언급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된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심은, 바로 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고,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다. 그렇다면 세번째 "인격"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관계들 안에 있을 수 있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격이 그 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한 당시를 우리가 읽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27)** 인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 거룩한 부부 한 쌍이 공동으로 영을 소유하였다. 이러한 성경 교리의 분명한 진술을 - 강화하기 위하여 되풀이하면, 우리가 참으로 신격의 "형상"을 구체화하여 증거하는 자들이다 - 이것이 아주 명백하고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오해할 수 없다.

그런데 한편, 참으로 항상 영적인 것들을 물질적인 세상에 완전히 적용시킬 수 없다, 사람을 창조함과 동시에 결혼을 명시한 참된 목적은, 신격이 중재인으로- 일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예증한 것이다, **(**에베소서 **5:24)**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분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 제한된 범위 내에서 -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창세기 **1:28)** 남편과 아내의 "세번째 개념"이 가족이다; 그리고, 그들이 표면상 육체를 소유하였으나, "한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창세기 **2:24)** 똑같은 경향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영"으로 연합되었다; 그 센스 안에서 그 분들이 완전히 하나다. **(**요한복음 **10:30)** - 비록 그들이 하나와 같이 행동할지라도 - 그러한 세번째 구성 요소들이 **(**가족이나 영이**)** 분리된 인격도 아니고 세번째의 구성 요소도 아니다. 만일 사람이 삼위일체설 신봉자 견해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신격과 인류 사이에 비슷한 상태를 완전히 그르치는 것이다.

2. 초기 재림교의 공헌

신격의 견해에 대하여,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기초적인 형식이 아닌, 초기 재림교인들의 기사들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바꿔 말하면, 만일 재림교 믿음의 선구자들이 야웨 하나님과 야쉬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였다면 **(**어떤 자들은 잘못 이해하였다**)** 성경 말씀들에서 기록된 노선대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물론, 어떤 교회든지 성경의 확실한 관점을 착색한 방침으로 전통을 세웠으므로, 처음부터 아주 적은 분량을 이해하였다; 그렇지만, 빛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인 "교회 교리"를 피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면, 과거의 잘못들을 정정하고, 오해한 것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주류 재림교가 주장하기를, 삼위일체설의 개념이 교회에 들어 온 것은, 확실히 "증가하는 빛"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설을 반대하는 초기 재림교인들의 가르침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후에 그 교리를 거절하였고, 더욱 분명한 진리를 지지하였다. 고 한다. 그러나, 근거가 확실한 원칙을 부적당하게 적용시킨다고 할지라도, 근거가 되는 요점을 아래와 같이 포함한다.

a) 성령이 사람들을 굽은 노선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배도한 경우 이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로부터 오류로, 그런 다음에, 진리로 되돌아 오지 않는다, 초기 재림교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떤 각도로도**)** 전진하는 표를,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성경말씀에서 명백한 언어로 개혁자의 진로와 지정된 특정인들을 드러내었다.

명백한 문체**:**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른다." **(**잠언 **4:18)**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유리를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고린도후서 **3:18)**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적을 향해 좇아갈 뿐이라." **(**빌립보서 **3:13b, 14)**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공개적으로 배도한 경우 이외에는, 결코 야웨 하나님의 영이 진리로부터 오류로 인도하지 않는다**;** 이는 성령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참된 목적을 거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 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 주시리라." **(**요한복음 **16:13**절 - 처음부터 끝까지 성별을 중성 대명사들로 사용한 것을 기억하라**.)**

이 견해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엘렌 지. 화이트가 조력하여 기록한 예언의 신이 뚜렷하게 명시한 것을, 초기 재림교인들이 소유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창조주의 인격을 이해하는 것이, 교회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을 그녀가 숙고하였다. 루터와 칼빈, 그리도 다른 자들이 잘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어떤 자들이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

그것이 사실이다 - 다른 입장에서 볼때, **1800**년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기까지 조만간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상한 자들이 단행한 것처럼, 그들에게 "열려진 계시"나 구성된 성경 연구가들이 완전히 일치하여 노력하고 헌신한 유익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b) 재림교 선구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받아들인 삼위일체설-반대론의 이론의 체계를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였다.

재림교 선구자들이 성경말씀으로부터 올바른 논리를 발표하고 토론하여 그들의 견해를 방어하였다. 그들이 삼위일체설과 엄격한 유니터리안 교도 **(**삼위일체설을 부인하지만, 그리스도를 신격화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양쪽 다 피한 것은, 그들을 극단파로 고려하였기 때문이었고 **[James White, Aug 5, 1852, Review and Herald - Vol. 3]**, 그리스도의 본질이 영원한 신성이심을 완전히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위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말씀으로 설명하고 검토한 것처럼, 초기 재림교인들과 삼위일체설을 믿는 운동가들에 다른점이, 본래 성령의 본질이 수반된 것이다.

어떤 논쟁이라도 성경을 사용한 초기 재림교리의 표상에 대하여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견해**)** 근대 변증자들 가운데 아무도 지금까지 만족한 응답을 하지 못하였다. 지나간 **1**세기 동안에 그들이 사용한 성경 구절들이나 추론이 변경되지 않았다; 과거에 그 분의 기쁘신 뜻을 그 분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것과 반대로, 전능하신 분의 말씀으로 새로운 빛을 발산한 적이 없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견론에 도달하게 된 것은, 상응하는 신격의 참된 개념을 잃어버린 주류 재림교 안에서 세속적인 영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어떤 지적인 형식의 정직함이나 종교적인 일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격의 견해가 더욱 더 확실하게 되었다. 주류 재림교가 그들의 가르침들을 실행하고 있는 동시에 교회가 세속화 되고 있다. 이는 하늘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7:17)** 성경말씀으로부터 강한 증거없이, 선구자들이 성경으로부터 확실한 근거를 사용하고 적용한 견해가 무슨 까닭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면, 객관적인 성경 연구가들과 재림교 역사가는, **CSDA**가 내린 결론 보다도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c) 일찍이 하늘과 예언자가 이 주제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기하지 않았다.

어떤 재림교 연구가들이 주장하기를, 엘렌 화이트가 그녀의 생애 후기에 삼위일체 신봉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기록된 증거가 없다는, 거짓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죽은 후에, 그녀의 아들이 말하기를, 그녀가 결코 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녀 자신의 기록들을 사용하여 그것을 지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W. C.** 화이트가 기록으로 말하기를, "우리의 어떤 목사들이 그들의 노력으로 성령을 입증하기 위하여 논쟁하며 제시한 것은,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영원하신 아들과 똑같은 인격이라고 하여, 나를 난처하게 하였고, 때로는 그들이 나에게 그것을 말하라고 하였다. **[Letter, W.C. White to H. W. Carr, 1939)**

만일 그녀가 생애 후기에 삼위일체설 신봉자가 되었다면,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그녀의 가족들과 그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 몰랐던 것이다. 단연코 성경이 해설하는 신격으로부터 빗나간 **J. H.** 켈록과 같은 특정하게 잘 알려진 인물을 책망할 동안에도 화이트 자매가 재림교 선구자들의 기록들을 변함없이 지지한 것은, 그녀가 한결같이 삼위일체설-반대자들의 견해를 지속하였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강조점: 엘렌지 화이트를 삼위일체설 신봉자로 추론하면,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그 후에, 그 교리를 장려하는 유일한 선지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선구자들의 견해를 토의한 출처를 인터넷에 포함하였다.

http://csda.us/binary/essays/ePioneer.html
http://csdachurch.org/phpBB2/viewtopic.php?t=64
http://csdachurch.org/phpBB2/viewtopic.php?t=98
http://csdachurch.org/phpBB2/viewtopic.php?t=175

이 안내서의 목적은, 성경이 주장하는 중요한 초점에 맞추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조상들의 유일한 견해가 완전히 역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요소가 된다. 이 주제에 대하여 비교적 생소한 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에서 준비한 첫번째 인터넷 연결로부터 제일 짧은 인용문들 몇개를 선택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말한 것들을 읽은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고하게 믿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존엄하신 분에 관한 우리의 주장을 포기함 없이, 삼위일체 신봉자들이 믿는 삼위일체설의 개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J.N. Waggoner, 1884, The Atonement in The Light of Nature and Revelation, p. 164,165]**

"프로테스탄트들이 캐톨릭 교회로부터 가지고 나온 근본적인 오류들이, 가짜 안식일과 [일요일 신성성] 다른 오류들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물뿌려 주는 세례, 삼위일체, 죽은 자의 의식, 그리고 고통 속에서 영생하는 것들이다. ... 그리스도 교회가 이 세상 위에 심판에 장면들이 돌발할 때까지, 이러한 오류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James white, Sept. 12, 1854, Review and Herald Vol. 6. No. 5, p. 36, para. 8, emphasis added]**

"그러나 이 '영'을 존경하면, 성경에서 표현한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은 인격의 개념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오히려 '영'이 그 두 분들로부터 거룩한 감화를 끼치는 매개물임을 보여준 것이며, 두 분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서, 그 분들이 소유하신 식견과 능력으로 온 우주를 통하여 그 분들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Uriah Smith, Oct 28, 1890, Review and Herald]**

"이 [삼위일체 신봉자들]의 교리가 하나님과 그 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파괴한다. 교회 위에 악랄한 조치를 취하여 이 교리를 강압한 것이, 교회 역사의 페이지에 나타났으므로, 그 교리를 믿는 모든 자들이 상당히 얼굴을 붉힐 이유가 될 것이다. **[J. N. Andrews, March 6, 1855, Review and Herald, Vol. 6, No. 24, p. 185]**"

"요한복음 **17**장이 단독으로 족하게 삼위일체 교리를 반박한다." **[J. N. Loughborough, Now. 5. 1861, Review and Herald, Vol. 18, p. 184, para. 1-11]**

"삼위일체 교리는 잔인한 다신교의 괴물이므로, 참된 구주이신 그 분의 신성과 예수의 중보자 지위를 제거한다. 우리가 신성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한정된 지력 너머에 있지만, 여전히 성경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주제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나타내었다." **[Letter, J. S. Washburn, 1939]**

이 적은 인용문들을 마음 속에 견본으로 삼고 , 다음에는, 이 문제가 실제로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우리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삼위일체 교리로 말미암는 종교적인 분규

왜 삼위일체가 그 정도로 토론할 문제가 되는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은 불화를 일으키는 논쟁을 하고, 교회들과 동료들로부터 분리하였다.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이 독특한 교리 때문에 그러한 수준의 독단주의가 절대로 아니다. 어떤 확고한 삼위일체설-반대자들의 그룹이 강력히 주장하기를, "만일 그들이 삼위일체에게 경배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경의를, 다신교 신들에게 돌리는 것이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고 한다. 사실상, 그 말에 진리의 척도가 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론의 체계가 무엇인지 개의치 않고, 똑같은 성경말씀을 양쪽이 지지하는 견해들로 사용하고 양쪽 다 그들의 견해와 똑같은 일반적인 특성들을 신격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삼위일체설 신봉자들이 다신교들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는 대신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사람들에게 더욱 요령있게 접근하기를 택하였다. "율법이 없는 (바꿔 말하면, 가르침)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 주느니라." (로마서 **2:14, 15a)**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그들이 적합한 교리를 배웠을 때, 재침례를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지식이 조금도 없이 침례를 받았던 것이다. (사도행전 **19:1-5)** 본질적으로, **1**세기에 개심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빛을 받은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 당시 선생들보다도 적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간단하게 함축한 것들이다: 삼위일체 이론의 체계에 대한 합법성과 삼위일체설 운동에 어떤 의도들을 **CSDA** 교회가 결코 주장하지 않을 것이고, 친교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와 다르게 확신한 자들에게는 참으로 멤버쉽까지도 필연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 것처럼, 삼위일체 신봉자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어쨌든 멤버쉽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전례가 없었다. 우리가 침례를 심사하는 질문들에서 (후기의 주제에서 침례 심사 절차를 다루었다) 신격의 본질을 정확하게 다루지 않았다. 만일 침례 희망자가 신격의 인격을 이해하면, 아들이 봉사하는 영의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죄를 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개심자의 가장 중요한 표가 된다.

만일 성경에서 드러낸 대로 정확하게 신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적으로,생애에서 죄를 이기는 기별을 이해하고 터득함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불확실한 언어들로 말하지 않았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요한복음 **17:3)**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지식은 (이 독특한 형식 안에서 성령을 한 인격처럼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은 것), 죄로부터 성화된 생애로 (그리스어: **hagiasmos:** 거룩함으로) 계속 인도 받는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14)** 잘못된 신격의 이론의 체계에 대한 정확한 한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참된 지식을 손상하면서, 동시에, 그런 식으로 **hagiasmos** (거룩함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인 무지함이나 반역자가 아니면, 대개, 그의 마지막 운명이 최후의 심판 때 결정된다. 이와는 다르게, 만일 그의 생애가 의롭고, 영의 열매들이 나타나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침례 후보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사도행전 **10:47)**

일반적으로 인정하듯이, 이것이 성경말씀 자체가 내포한 뜻을 전제로 하여 극히 드물게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바울의 개심한 경험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설명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이 구절을 이전 장에서 검토하였다, 이는 아들의 참된 생명이 개심자들 안에 충만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 참으로, 그의 심중에 아들이 거하심을 요한복음 **14:23**절에서 지적하였다.

지금도, 또한 개심자의 심중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사실이다. (사도행전 **13:52)**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심중에 그 분들이 거하시므로, 우리의 심중에 성령이 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리된 인격이 아니고 - 아버지와 아들의 참된 임재하심이 '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심중에 허구의 인물이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일 삼위일체 신봉자들이 말하기를, "신격 중에 어느 분이 개심자 안에 거하시는가?," 라고 하면, 그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삼위일체 전체가 거하신다." 이것이 잘못된 말이다, 왜냐하면, 그가 언급한 인격들 중에 하나가 허구 인물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말하기를, "영"이라고 하면, 그가 역시 정확하게 말하였지만, 비록 그가 옳은 말을 하였을지라도, 다른 분들과 함께 하나를 잘못 증명하였으므로, 그의 마음과 영의 생각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이 교묘한 포인트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삼위일체 신봉자들이 "성령"을 말할 때, 비록 옳은 인격을 말할지라도 삼위일체설-반대자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진리들을, "사람 속"에 존재하는 분에 따라 반응한다. (에베소서 **3;16)**

요한복음 **17:3**절이 글자 그대로 참되다. -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의 참된 토대이다. 메시야께서 나타나실 때, 그 분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사람이 그 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교리들을 고백한 것도 아니며, 개심과 함께 감정적인 만족감을 수반하는 생애도 아니다. 그 분이 한 그룹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5:15)** 또 그 분이 다른 그룹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23)**

만일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관계를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막연한 개론을 서둘러 말하기 사작할 것이고, 이해하여야 할 어떤 의미를 피하기 위하여 "신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것이다, 이는 우리를 초청하셔서 깨닫게 하신 분을 참으로 알기를 피하는 것이다.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신명기 **29:29)**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신봉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신격의 개념이 동화와 다름없는 거리가 먼 이론으로서, 미묘하고 희박한 것이므로, 가장 교활한 것 중에 하나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가장 침투성이 있는, 이 모델을 택하여 보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The Highway of Holiness. Volume 1. p. 133-145**

David